

보도설명자료 (‘12. 5. 15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정부, EU '이란 원유 보험중단' 녀달간 몰랐다 ”
보도에 대한 입장 (경향신문, ‘12.5.15)

1. 기사내용

- 한국 정부는 EU가 이란 석유수입을 중단한다는 것 외에는 4개월 동안 보험적용 중단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한국정부가 EU의 보험중단 제재내용에 대하여 녀달간 몰랐다는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
- 정부는 EU의 이사회 결정(1.23) 이후부터 관계부처 대책을 논의하고 EU회원국 주재 대사관을 통하여 EU 각국에 대한 설득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왔음.
- 그 결과, EU는 이란제재 이행규정(3.23제정)제정 과정에서 P&I보험을 6.30까지 연장하도록 입장을 변경하였음
 - * 1.23 외무장관 이사회 결정 : 1.23일 이전계약에 대해서는 6.30까지 보험인정, 1.23일 이후 계약은 보험제공 금지
 - * 3.23 이행규정 제정 : P&I는 계약시기와 관계없이 6.30까지 인정
- 이후로도 정부대표단을 EU에 파견(4월)하고, 주재국 대사관을 통해 설득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보험이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

※ 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미주협력과 정종영 과장 (02-2110-5381)

최성준 사무관 (02-2110-5384)